





# Theme 1. 평가원 기출문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시험 A형]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기원전 323년 사망한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드로스는 역사상 유례없을 정도의 짧은 기간에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그의 과감함과 용맹 그리고 요절은 이미 고대에 그에 대한 여러 전설을 만들어 놓았다. 하지만 그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고대 저술가들이 모두 그에게 호의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이는 1~2세기에 활동한 세 역사가들의 저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세 역사가인 ㉠ 아리아노스, ㉡ 플루타르코스, ㉢ 쿠르티우스 중에서 아리아노스와 플루타르코스는 그를 호의적으로 평가한 편이고, 쿠르티우스는 비판적이었다. 그러나 아리아노스와 플루타르코스 사이에도 약간의 차이는 있다. 아리아노스는 알렉산드로스가 명백하게 잘못된 경우에도 상대방 역시 잘못이 있다고 하여 책임 소재를 분산시킬 만큼 그에 대해 호의적이었다. 하지만 플루타르코스는 알렉산드로스를 영웅으로 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판적인 묘사를 조금씩 삽입하여 반감을 약간씩 내비친다. 한편 쿠르티우스는 알렉산드로스의 친품은 좋으나,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나서는 자만과 포악이 겸양을 능가하게 되었다고 비판한다.

이런 세 작가들의 입장 차이는 그들이 속한 역사적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중 아리아노스와 플루타르코스는 당시 로마의 속주였던 그리스 출신이다. 그러나 전자는 로마 제국의 고위직에 올랐던 반면, 후자는 고향에서 신관으로 일했기에 정치와는 무관했다. 그들은 모두 알렉산드로스가 마케도니아·그리스 연합군을 이끌고, 과거 그리스를 침공했던 페르시아를 정복했다는 면을 중시하였다. 그러나 플루타르코스가 태어난 지역이 과거 마케도니아에 반기를 들었다가 진압 당했던 곳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의 평가에 내재하는 반감을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쿠르티우스는 로마의 귀족이고 원로원 의원이었다. 그가 알렉산드로스에 대해 아리아노스와 대조적인 평가를 한 데에는 시대적 배경이 있다. 쿠르티우스가 활동한 1세기는 로마 제정이 막 시작되었을 때였고, 황제는 '제1시민'이라는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여 공화정을 가장하고 있었다. 공화정을 주도했던 원로원이 유명무실해져 가는 상황에서 쿠르티우스는 알렉산드로스가 절대 권력을 행사한 데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한 세기가 더 지나 아리아노스가 활동할 때가 되면 제정은 확립되었고, 그는 속주 출신이라는 한계 때문에라도 지배자에 대해 충성의 자세를 보여야 했다. 그가 쓴 작품은 결국 황제에 바치는 충성의 맹세였던 것이다.

1. 위 글에 나타난 인물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알렉산드로스는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설의 소재이자 찬미의 대상이었다.
- ② 플루타르코스와 쿠르티우스는 다 같이 로마의 속주 출신이라는 동질감을 지녔다.
- ③ 아리아노스는 로마의 공직자였기에 알렉산드로스의 정복에 대해 위협을 느꼈다.
- ④ 아리아노스와 쿠르티우스는 로마 제정 시대에 활동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 ⑤ 플루타르코스는 태생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책을 썼다.

2. 위 글의 글쓴이가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논지로 알맞은 것은?

- ① 역사가는 당대의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한다.
- ② 역사가는 서술 대상과 거리를 두고 냉엄하게 판단한다.
- ③ 역사가는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기 위해 대상을 철저히 조사한다.
- ④ 역사가의 역사 해석은 개인적 가치관과 시대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 ⑤ 역사가의 역사 서술 목적은 교훈을 주고 미래를 대비하게 하는 것이다.

3. ㉠~㉢이 서술한 사례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보기>

- (가) 페르시아의 수도를 장악한 알렉산드로스는 육망을 억제하지 않게 되었다. 그가 예전에 가졌던 자제력과 금욕은 타락하여 거만과 방탕으로 변했다. 그리고 신적 권위를 내세우는 페르시아 왕을 흉내 내기 시작했다.
- (나) 식사 때의 알렉산드로스는 다른 어떤 왕보다 인자하고 명랑했지만 전쟁 이야기만 나오면 듣는 사람이 난처해질 만큼 자기 자랑을 했다. 이는 친품 타이기도 하고, 아첨꾼들에게 둘러싸여 자랐기 때문이기도 하다.
- (다) 알렉산드로스가 친구이자 생명의 은인인 클레이토스를 술자리에서의 말다툼 끝에 살해했지만, 클레이토스도 왕에게 무례했던 책임이 있다. 더구나 그 후에 곧 자신이 광포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점은 칭찬할 만하다.

- |   |     |     |     |
|---|-----|-----|-----|
|   | ㉠   | ㉡   | ㉢   |
| ① | (가) | (나) | (다) |
| ② | (가) | (다) | (나) |
| ③ | (나) | (다) | (가) |
| ④ | (다) | (가) | (나) |
| ⑤ | (다) | (나) | (가) |

[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기원전 5세기,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 전쟁에 대한 책을 쓰면서 『역사(Historiai)』라는 제목을 붙였다. 이 제목의 어원이 되는 'histor'는 원래 '목격자', '증인'이라는 뜻의 법정 용어였다. 이처럼 어원상 '역사'는 본래 '목격자의 증언'을 뜻했지만, 헤로도토스의 『역사』가 나타난 이후 '진실의 탐구' 혹은 '탐구한 결과의 이야기'라는 의미로 바뀌었다.

헤로도토스 이전에는 사실과 허구가 뒤섞인 신화와 전설, 혹은 종교를 통해 과거에 대한 지식이 전수되었다. 특히 고대 그리스인들이 주로 과거에 대한 지식의 원천으로 삼은 것은 『일리아스』였다. 『일리아스』는 기원전 9세기의 시인 호메로스가 오래전부터 구전되어 온 트로이 전쟁에 대해 읊은 서사시이다. 이 서사시에서는 전쟁을 통해 신들, 특히 제우스 신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헤로도토스는 바로 이런 신화적 세계관에 입각한 서사시와 구별되는 새로운 이야기 양식을 만들어 내고자 했다. 즉, 헤로도토스는 가까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직접 확인·탐구하여 인과적 형식으로 서술함으로써 역사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것이다.

『역사』가 등장한 이후, 사람들은 역사 서술의 효용성이 과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게 하여 후세인(後世人)에게 교훈을 주는 데 있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에는 한 번 일어났던 일이 마치 계절처럼 되풀이하여 다시 나타난다는 순환 사관이 바탕에 깔려 있다. 그리하여 오랫동안 역사는 사람을 올바르게 지혜롭게 가르치는 '삶의 학교'로 인식되었다. 이렇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서술이 정확하고 객관적이어야 했다.

물론 모든 역사가들이 정확성과 객관성을 역사 서술의 우선적 원칙으로 ④ 앞세운 것은 아니다. 오히려 헬레니즘과 로마 시대의 역사가들 중 상당수는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독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역사 서술에 몰두하였고, 이런 경향은 중세 시대에도 어느 정도 지속되었다. 이들은 이야기를 감동적이고 설득력 있게 쓰는 것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역사를 수사학의 테두리 안에 집어넣은 셈이 된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역사의 본령은 과거의 중요한 사건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데 있다고 보는 역사가들이 여전히 존재하여, 그들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더욱이 15세기 이후부터는 수사학적 역사 서술이 역사 서술의 장에서 퇴출되고, ㉠ 과거를 정확히 탐구하려는 의식과 과거 사실에 대한 객관적 서술 태도가 역사의 척도로 다시금 중시되었다.

4.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역사는 수사학의 범위 안에서 점차 발전 되어 왔다.
- ② 헤로도토스는 『역사』에서 페르시아 전쟁의 원인과 결과를 서술하였다.
- ③ 역사의 어원이 되는 'histor'라는 단어는 재판 과정에서 증인을 지칭할 때 쓰였다.
- ④ 사람들이 역사를 '삶의 학교'라고 인식한 것은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자 기대했기 때문이다.
- ⑤ 『역사』의 등장 이후, 사람들은 역사 서술의 효용성을 과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데에서 찾았다.

5.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반응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 필라르코스는 자신이 쓴 역사서에서 독자들의 동정심을 일으키고 주의를 끌 만한 장면들을 세세히 묘사하고 있다. 역사가는 그런 과장된 묘사로 독자를 감동시키려고 애쓰면 안 된다. 또 비극 작가들처럼 등장인물들이 했을 법한 말을 상상하여 서술해서도 안 된다.

- 폴리비오스, 『세계사』 -

(나) 역사가는 무엇보다 거울 같은 마음을 지녀야 한다. 거울은 맑고 밝게 빛나며 왜곡이나 채색함이 없이 사물의 형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 준다. 역사가가 말하는 것, 즉 사실은 스스로 말한다. 그것은 이미 일어난 일인 까닭이다.

- 루키아노스, 『역사에 대하여』 -

(다) 과거사에 대해,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따라 언젠가는 비슷한 형태로 다시 나타날 미래의 일에 대해 명확한 진실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내 책을 유용하게 여길 것이다.

- 투키디데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

- ① (가)의 '필라르코스'는 수사학적 역사 서술을 했다고 보아야겠군.
- ② (나)는 역사가의 덕목인 정확성과 객관성을 '거울'로 표상하고 있군.
- ③ (다)의 투키디데스는 순환 사관에 입각하여 자신의 저작의 효용성을 내세우고 있군.
- ④ (가), (나)는 모두 과거사를 가감 없이 전달하는 것을 중요시 하고 있군.
- ⑤ (가), (다)는 모두 역사 서술에서 교훈성보다 설득력을 중시하고 있군.



6. ㉠의 입장에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비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직접 확인하지 않고 구전에만 의거해 서술했으므로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신화와 전설 등의 정보를 후대에 전달하면서 객관적 서술 태도를 배제하지 못했다.
- ③ 트로이 전쟁의 중요성은 인식하였으나 실제 사실을 확인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 ④ 신화적 세계관에 따른 서술로 인해 과거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추출해 내기 어렵다.
- ⑤ 과거의 지식을 습득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과거를 정확히 탐구하려는 의식은 찾을 수 없다.

7.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합성어의 구성 방식이 ㉠과 같은 것은?

〈보 기〉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이다. 용언의 경우, 합성어 내부의 구성 방식에 따라 '주어+서술어'로 해석 되는 것, '목적어+서술어'로 해석되는 것, '부사어+서술어'로 해석되는 것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① 명들다
- ② 빛내다
- ③ 힘쓰다
- ④ 그늘지다
- ⑤ 남다르다

[2011학년도 9월 모의평가]

[8~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음악사학자들은 서양 음악의 기원을 고대 그리스 음악에서 찾는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인들이 향유하던 음악이 실제로 어떠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그 이유는 음악적 실체를 밝힐 문헌 자료가 충분치 않고, 현존하는 자료의 대부분이 음악 그 자체보다는 이론이 어떠했는지에 관해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들에게 음악은 기예 영역이라기보다 학문적 영역이었다는 점인데, 이는 고대 그리스 음악 이론에 ㉠ 내재한 수학적 인 사고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나) 음악에서 수학적 관계를 처음으로 밝혀낸 학자는 바로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피타고라스이다. ㉡ "만물은 수(數)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한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분야가 곧 음악이었다. 피타고라스는 ㉢ 하프를 직접 연주하면서 소리를 분석하여, ㉣ 하프에서 나오는 소리가 가장 듣기 좋게 조화를 이루는 경우에 하프 현의 길이가 ㉤ 간단한 정수비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도와 한 옥타브 위의 '도'는 2:1, 도와 솔의 5도는 3:2, 솔과 그 위 '도'의 4도는 4:3의 비를 이룬다는 것 등이 그것인데, ㉥ 5도에 기초한 피타고라스 음률이 곧 오늘날 우리가 음정이라 하는 것의 기원이며, 음향학의 출발이기도 하다.

(다) 음악을 수학의 눈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최초의 음악 이론가로 알려져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는 피타고라스의 음악관을 비판하며 실제적 측면에서 음악을 바라본다. 그는 '감각적 지각'이 수적 비율보다 음악을 판단하는 데에 더 근본적이라 주장하며, 이를 미적 체험의 바탕으로 삼았다. 예를 들어 5도를 아름답다고 들었을 때, 그것이 왜 아름답게 들리는지를 수리적 추리를 통해 이해하려고 했던 피타고라스와는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귀로 지각된 소리를 근거로 음악의 아름다움을 판단한다.

(라) 아리스토텔레스는 경험적이고 현상론적인 입장에서 오늘날 서양 음악의 기초가 되는 리듬과 멜로디에 관한 이론을 제시하고 당시 통용되던 음악 현상들을 실제적으로 정리하였다. 논리보다는 경험을 중시하는 그의 학문 성향은 음악주의자라고 불리는 후대의 많은 이론가들에게 받아들여졌으며, 음악을 수학적으로 풀이하려는 피타고라스주의자들에게는 비판받았다.

(마) 고대 그리스 음악 이론의 두 전통은 논리이나 경험이나의 대조적인 사유의 두 축을 이루며, 서양 음악 이론의 맥을 형성하였다. 이 두 전통에 ㉦ 배어 있는 대립적 성향은 비단 이론뿐 아니라, 창작.연주.감상에 이르는 다양한 음악 활동을 평가하는 잣대로 자리매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8. 위 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 비유적 진술을 통해 화제를 소개하고 있다.
- ② (나): 주제와 관련된 핵심적인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 ③ (다): 관점의 차이를 부각하며 다른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 ④ (라): 앞 단락의 내용과 대조되는 사실을 제시하여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 ⑤ (마): 상반된 견해를 절충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9. <보기>를 읽고 ㉠~㉣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중세의 음악 이론가 보이티우스는 음악을 세 종류로 분류하였다. 가장 높은 단계의 ㉠ 뮤지카 문다나는 천체나 지구가 만들어 내는 음악으로 대우주의 수(數)적 조화를 의미한다. 그 다음 단계인 ㉡ 뮤지카 휴마나는 우주 질서의 영향을 받는 육체와 영혼 및 그들의 조화를 일컫는 말이다. 이 두 단계의 음악이 귀로 들을 수 없는 정신적 상태를 뜻한다면, 세 번째 단계인 ㉢ 뮤지카 인스트루멘탈리스는 인간의 목소리를 포함한 악기들의 물리적인 소리들이 음향학적 원칙들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말한다.

- ① ㉠의 생각은 ㉡로 전승되었군.
- ② ㉡의 행위에 의해 ㉢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이 구현되는 것은 ㉡의 차원이겠군.
- ④ ㉢이 음향학의 기반이 되는 것은 ㉡의 차원이겠군.
- ⑤ ㉣을 구현하면 ㉢가 되겠군.

10. [음악주의자]의 태도에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첼리스트 카잘스는 연주 전, 악곡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며 음악의 구성 원리를 파악하였다.
- ② 음악 애호가 영수는 음악을 감상할 때 음악 요소들 간의 수리적 관계를 탐구하였다.
- ③ 성악가 수희는 독창회 준비 과정에서 음반을 들으며 악곡의 분위기를 익혔다.
- ④ 음악 이론가 베빗은 베베른의 음악에서 대칭 관계를 체계적으로 밝혀냈다.
- ⑤ 작곡가 노노는 악곡 설계 과정에서 피보나치수열을 적용하였다.

11.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첼로를 전공하는 윤지는 음향학 시간에 배운 음정의 원리를 C현에 적용하고 있다. 윤지는 도가 소리 나는 이 C현을 12 등분하여, 확장된 비례식 12 : 9 : 8 : 6을 가지고 옥타브 안에 존재하는 5도, 4도, 온음 사이의 복합적인 관계를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온음)

- ① [도-솔]과 [파-도']의 음정은 같겠군.
- ② 옥타브는 5도와 4도의 결합으로 설명할 수 있겠군.
- ③ 옥타브는 두 개의 4도와 한 개의 온음으로 구성되겠군.
- ④ 현 길이의 비가 12 : 8인 두 현을 켜면 4도가 소리 나겠군.
- ⑤ 현 길이의 비 9 : 8은 5도와 4도의 차이인 온음에 해당하겠군.

12. ㉠과 ㉡를 공통으로 대치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겹쳐 있는                      ② 들어 있는                      ③ 쏠려 있는
- ④ 안겨 있는                      ⑤ 얹혀 있는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탁월함은 어떻게 습득되는가,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하여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성의 탁월함은 가르칠 수 있지만, 성품의 탁월함은 비이성적인 것이어서 가르칠 수 없고,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대답한다.

(나) 그는 좋은 성품을 얻는 것을 기술을 습득하는 것에 비유한다. 그에 따르면, 리라(lyra)를 켜므로써 리라를 켜는 법을 배우며 말을 탐으로써 말을 타는 법을 배운다. 어떤 기술을 얻고자 할 때 처음에는 교사의 지시대로 행동한다. 그리고 반복 연습을 통하여 그 행동이 점점 더 하기 쉽게 되고 마침내 제2의 천성이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 진실되고 관대하며 ㉡ 예의를 차리게 되는지 일일이 배워야 한다. 훈련과 반복을 통하여 그런 행위들을 연마하다 보면 그것들을 점점 더 쉽게 하게 되고, 결국에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다) 그는 올바른 훈련이란 강제가 아니고 그 자체가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은 일을 바르게 처리하는 것을 즐기게 되고, 일을 바르게 처리하고 싶어하게 되며,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게 된다. 이처럼 성품의 탁월함이란 사람들이 '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과도 관련된다. 그리고 한두 번 관대한 행동을 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늘 관대한 행동을 하고 그런 행동에 감정적으로 끌리는 성향을 갖고 있어야 비로소 관대함에 관하여 성품의 탁월함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라)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생각해 보자. 갑돌이는 성품이 곧고 자신감이 충만하다. 그가 한 모임에 참석하였는데, 거기서 다수의 사람들이 옳지 않은 행동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다수의 행동에 대하여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며 그렇게 하는 데에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한편, 수줍어하고 우유부단한 병식이기도 한 모임에 참석하였는데, 그 역시 다수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을 했다고 하자. 이런 경우에 병식은 일어나서 다수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의지를 발휘해야 할 것이고 자신과 힘든 싸움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병식이 그렇게 행동했다면 우리는 병식이 용기 있게 행동하였다고 칭찬할 것이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성품의 탁월함을 가진 사람은 갑돌이다. 왜냐하면  ㉠

(마)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존경할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 아이를 어떤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에 가까워질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갑돌이와 같은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이다.

13. (가)~(마)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논제를 설정하기 위해 개념을 구분하고 있다.
- ② (나)는 함축된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 ③ (다)는 논점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 개념의 차이를 부각시키고 있다.
- ④ (라)는 논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예화를 사용하고 있다.
- ⑤ (마)는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논점을 실제적인 물음과 연결 짓고 있다.

14.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그는 옳은 일을 하는 천성을 타고났기 때문이다.
- ② 그는 주체적 판단에 따라 옳은 일을 하기 때문이다.
- ③ 그는 내적인 갈등이 없이 옳은 일을 하기 때문이다.
- ④ 그는 자신이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옳은 일을 하기 때문이다.
- 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의식하지 않고 옳은 일을 하기 때문이다.

15.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을 비판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어떤 행위가 도덕적인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도덕 법칙을 지키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한다. 도덕 법칙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해도 행위자의 감정이나 욕구 또는 성향이 행위의 동기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것은 훌륭한 행위일 수는 있어도 도덕적인 행위는 아닌 것이다.

- ① 탁월한 성품에서 비롯된 행위는 행위자의 성향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지, 도덕 법칙을 지키려는 의지에 의해 결정된 행위가 아니므로, 도덕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
- ② 도덕적 행동을 하기 위해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 내야 한다. 옳은 행동을 즐겨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따라서 탁월한 성품을 갖춘 사람을 찾기란 어렵다.
- ③ 행위의 도덕성은 그 행위가 얼마나 도덕 법칙에 부합하는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품성이나 자질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 ④ 훈련의 결과 언제나 탁월한 성품이 얻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탁월한 성품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국 본성에 기댈 수밖에 없다.
- ⑤ 훈련으로 얻어지는 성품에서 나오는 행동은 대개 이성적 성찰을 거치지 않으므로, 도덕적인 행위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16. ㉠의 의미는 결여되어 있으면서 ㉡의 의미는 들어 있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빈말                      ② 너스레                      ③ 생트집  
④ 어깃장                      ⑤ 인사치레

## Theme 2. LEET·MEET·사관학교·과거 평가원

[200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7~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고자(告子) 말하기를, “성품은 웅덩이에 고인 물과 같아서 동쪽으로 터놓으면 동쪽으로 흐르고, 서쪽으로 터놓으면 서쪽으로 흐를 것이니, 사람의 성품이 착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구분할 수 없는 것은 마치 물의 동서(東西)를 구분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에 맹자(孟子) 말하기를, “물은 진실로 동서를 구분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위와 아래의 구분도 없는가? 사람의 성품이 착하다는 것은 물이 아래로 흐름과 같으니, 착하지 않은 사람도 없고 아래로 흐르지 않는 물도 없는 것이다. 이제 물을 쳐 올리면 머리 위로 될 수도 있고, 물길을 막아 거스르게 하면 산 위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것이 어찌 물의 본성이겠는가? 그 형세에 따라 그렇게 된 것이다. 사람이 때로 나쁘게 될지라도 그 성품은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

(나)

소크라테스 : 자네 말은 이런 것이지. 재산, 권력, 건강, 영예, 그리고 용기를 가진 사람이 행복하다고.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무엇보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유용하게 쓰일 때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을까?

제 자 : 그것도 그렇군요.

소크라테스 : 그렇다면 만약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이 유용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쓰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을 유용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제 자 : 아니요, 아무 소용도 없겠지요.

소크라테스 :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사람은 유용한 것을 가지는 데 그치지 말고, 그것을 사용해야만 한다고.

제 자 :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크라테스 : 그러나 ㉠ 그저 사용하면 되는 것은 아니지. 올바른 사용법과 그릇된 사용법이 있을 테니까. 만약 목수가 연장을 잘못 쓴다면 재료를 버리게 되니 쓰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게 아닌가?

제 자 : 그러면 목수가 연장을 올바르게 쓰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소크라테스 : 목수가 톱이나 도끼를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악사가 연주를 잘하고, 조각가가 조각을 잘하는 데는 무엇이 필요할까? 자기 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아닐까?

제 자 : 바로 그렇군요. 옳은 말씀입니다.

소크라테스 : 그렇다면 먼저 말한 재산이라든가 권력, 건강, 영예, 용기 따위도 그것이 있기에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참된 지식에 의해 올바르게 사용되어야만 선한 것이며, 만약 그것을 무지(無知)가 지배한다면 오히려 나쁘지 않을까?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은 서구에서 최초의 문학 이론서라고 알려져 있다. 모든 시초에는 뒷날의 발전 가능성이 **㉠** 잠재해 있는 법이지만 『시학』의 경우는 각별히 그러하다. **㉡** 『시학』에서 **맹아**의 형태로 내재되어 있던 중요 쟁점들이 뒷날 많은 문학 이론가들에 의해서 **씩을 띄우게 되었기 때문이다.** 비극이 주된 관심의 대상인 이 『시학』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어 온 것은 카타르시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이 연민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사건을 통해서 이런 감정들의 카타르시스를 성취한다고 하면서 카타르시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정화(淨化)의 의미로만 알려져 있는 이 카타르시스는 이른바 정화이론(淨化理論)과 조정이론(調整理論)의 둘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올바른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먼저 정화이론에서는 카타르시스를 재귀적 과정으로 파악한다. 즉 비극은 연민과 공포를 불러일으킨 뒤에 이들 감정을 마음 밖으로 몰아내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러한 정화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카타르시스라고 본다. 플라톤은 『국가』에서 비극이 연민을 환기하여 구경꾼들을 겁쟁이로 **㉢** 전락시킨다고 비판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이러한 문학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다. 비극이 연민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밖으로 몰아내기 위해서 그런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은 플라톤의 비판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정화'가 어떻게 작용하느냐 하는 것이다. 르네상스 시대부터 『시학』의 해석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고대의학에서 쓴 동류요법(同類療法)의 개념이었다고 설명한다. 즉 열병은 열기로 다스리고 한기는 한기로 다스린다는 이열치열(以熱治熱)이 그것이다. 이러한 동류요법에 의한 카타르시스 해석 즉 정화이론은 20세기에 들어와서 프로이트의 영향력이 커짐과 동시에 널리 받아들여지게 된다. 프로이트는 환자들의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의 경험을 최면을 통해 회상시킴으로써 신경증의 증상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의 이러한 정신분석법은 어린 시절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불러들여 몰아내는 정화와 연관되어 있다.

하지만 조정이론에서는 이러한 정화이론에 반론을 펼친다. 즉 비극은 연민과 공포를 불러일으킨 뒤에 이들 감정을 밖으로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들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런 조정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카타르시스라고 본다. 플라톤은 감정이 이성에 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아리스토텔레스는 감정이 이성 못지않게 인간의 중요한 일부라고 생각했다. 감정은 그 자체로 해로운 것이 아니며 적절히 통제되지 못할 때에만 해롭다고 **㉣** 간주했다. 이처럼 조정이론은 감정의 몰아내기라는 개념을 동반하지 않는다. 연민은 흔히 좋은 감정으로 파악되며 적절한 공포는 건강에 좋은 것이 된다. 이 조정이론은 정신의 건강이 양극단 사이의 중용에 있다고 본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그 논거를 **㉤** 원용한 것이다. 이 윤리학에 기초

17. (가)와 (나)의 공통적인 말하기 방식은?

- ① 상대방의 인품을 거론하고 있다.
- ② 상대방과의 논쟁을 회피하고 있다.
- ③ 비유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상황 논리를 들어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다.
- ⑤ 상대방의 주장을 임의로 해석하여 말하고 있다.

18. (가)의 내용을 풀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자 : 웅덩이에 고인 물 → 본디 악한 성품
- ② 고자 : 동, 서를 구분할 수 없는 물  
→ 선과 악으로 구분할 수 없는 성품
- ③ 맹자 :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 → 본디 착한 성품
- ④ 맹자 : 아래에서 위로 거스르는 물 → 때로 나쁘게 되는 성품
- ⑤ 고자·맹자 : 물 → 인간의 성품

19. (나)에서 소크라테스가 제자에게 가르치려는 것은?

- ① 현실 참여의 방법
- ② 바람직한 토론 자세
- ③ 무지가 지배하는 이유
- ④ 세속적 행복을 위한 덕목
- ⑤ 참된 지식의 올바른 사용

20. (나)의 소크라테스의 견해에 따라 대중 음악을 감상한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중 음악은 스승과 함께 들어야 해.
- ② 대중 음악은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해.
- ③ 대중 음악은 이론을 알고 들을 때 더 좋아.
- ④ 대중 음악은 여럿이 같이 들을 때 흥이 나.
- ⑤ 대중 음악은 고전 음악과 늘 함께 들어야 해.

21. <보기>는 사전의 뜻풀이이다. ㉠의 의미에 가장 가까운 것은?

— < 보 기 > —

그저 ㉠ ㉡ 변함없이 이제까지. ㉢ 비가 그저 내리고 있다. ㉣ ('그러나', '그러하다' 따위와 함께 쓰여) 별로 신기한 일 없이. ㉤ 요새는 그저 그렇습니다. ㉥ 특별한 목적이나 이유 없이. ㉦ 그저 한번 해본 말이다. ㉧ (남을 책망하거나 비난하는 뜻으로) 아닌 게 아니라 과연. ㉨ 내 그저 그럴 줄 알았지. ㉩ 공짜로. → 거저<sup>3</sup>. (방언).

- ① ㉠      ② ㉡      ③ ㉢      ④ ㉣      ⑤ ㉤

한 조정이론에 따르면 카타르시스는 일종의 정신적, 도덕적인 길들이기가 된다. 이를 통해 비극을 구경하는 이들은 연민이나 공포와 같은 감정의 적절한 효용을 배우게 된다.

이러한 조정이론은 다시 두 가지의 관점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먼저 르네상스 시기에 카스텔베트로를 <sup>㉔</sup> 위시한 몇몇은 비극이 감정을 단련시켜 준다고 하였다. 싸움터에서 병사들이 동료의 죽음을 빈번하게 목격하게 되면서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게 되듯이 구경꾼들은 비극 속에서 끔찍하고 보기 딱한 사건을 구경함으로써 가파른 삶의 실상에 익숙해진다는 것이다. 한편 18세기 독일의 레싱 같은 비평가는 비극이 감수성을 예민하게 함으로써 구경꾼의 심성을 부드럽게 순환시켜 준다고 주장하였다. 이 둘은 모두 조정이론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하나 세부적인 설명에서는 서로 다른 관점을 보이고 있다.

플라톤이 비극의 가치를 공격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서, 또 비극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관점으로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논의된 카타르시스는 오늘날까지 논쟁적이면서도 설득력 있는 쟁점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 22. 윗글의 전개 과정을 고려하여 ㉔을 가장 잘 이해한 것은?

- ① 비극의 효용을 부정하는 플라톤과 그 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아리스토텔레스 사이의 논쟁이 후대의 이론가들에 의해 더욱 심화되어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군.
- ②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언급한 화두인 카타르시스가 후대 이론가들의 여러 논의로 파생되면서 비극의 가치가 재조명될 수 있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군.
- ③ 아리스토텔레스가 정화와 조정의 두 관점으로 해석한 카타르시스의 개념을 후대 이론가들이 통합시킴으로써 『시학』의 학문적 위상을 높였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군.
- ④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한 카타르시스의 개념을 후대의 몇몇 이론가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중세와 르네상스의 사상적 가교 역할을 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군.
- ⑤ 비극의 향유자가 경험하는 카타르시스의 작용 원리를 후대 이론가들이 고전 의학이나 특정 윤리학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비극의 효용성을 강화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군.

## 23.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정이론은 감정이 조정되는 양상에 따라 두 가지 관점으로 나뉜다.
- ② 프로이트의 정신분석법은 카타르시스의 정화이론과 깊은 관련이 있다.
- ③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무리 좋은 감정이라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면 해롭다고 보았다.
- ④ 플라톤은 이성이 감정을 제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카타르시스의 효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 ⑤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극단보다는 중용을 지향하는 태도가 정신 건강에 좋다고 주장한다.



24. <보기>는 '카타르시스'와 관련된 과제 발표 수업의 일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발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자, 지난 시간에는 카타르시스에 대해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제로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비극 작품 「리어왕」을 각자 읽어 오라 했었는데요. 그러면 오늘은 「리어왕」을 읽고 난 후에 개인이 느낀 감상을 카타르시스의 관점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가 영:** 셋째 딸 코델리아가 왕으로부터 부당한 버림을 받는 장면에서는, 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에게 억울하게 혼이 났던 일이 생각나면서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그치고 나니 이상하게도 십 년 묵은 체증이 싹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시다.

**나 영:** 질투에 눈이 먼 첫째 딸이 둘째 딸을 독살한 후 가책을 느껴 자살하는 장면을 보면서, 인생이 헛된 야망으로 허무하게 끝이 날 수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란 것이 항상 우리 곁에 맴돌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의연하게 삶을 영위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영:** 리어왕과 그 딸들이 겪은 비극적인 가족사를 접하면서 가족에 대한 사랑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가족들에게 통명스러웠던 내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부모님과 누나, 형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훨씬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 ① '가영'이 코델리아에 대한 연민의 감정이 마음속에 환기된 후 이것을 마음 밖으로 몰아내는 경험을 한 것은 카타르시스의 재귀적 과정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가영'이 코델리아에게서 자신이 어릴 적 겪었던 일을 떠올리며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을 받은 것은 동류요법과 관련된 카타르시스를 경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나영'이 두 자매의 비극적인 죽음에서 삶의 허무함을 느끼고 이것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것임을 인식한 것은 카스텔베트로가 주장한 카타르시스를 경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나영'이 의연하게 삶을 영위해 나가자 하는 것은 연민과 공포의 감정을 배제하는 과정을 통해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도덕적으로 길들여진 결과라고 볼 수 있겠군.
- ⑤ '다영'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접하고 이전과 달리 가족들을 대하는 심성이 부드럽게 순화되는 느낌을 받은 것은 레싱이 주장한 카타르시스를 경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25.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속에 잠겨 있거나 숨어 있음.
- ② ㉡ : 나쁜 상태나 타락한 상태에 빠짐.
- ③ ㉢ : 확실하게 알아보거나 인정함.
- ④ ㉣ : 주장을 세우기 위해 어떤 문헌 내용을 끌어다 씀.
- ⑤ ㉤ : 여럿 가운데 어떤 대상을 첫째 또는 대표로 삼음.

[2016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언어이해]

[26~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윤리학에서는 선(善, good) 즉 좋음과 관련하여 여러 쟁점이 있다. 선이란 무엇인가? 선을 쾌락이라고 간주해도 되는가? 선은 도덕적으로 옳음 또는 정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러한 쟁점 중의 하나가 바로 “선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문제이다.

플라톤은 우리가 감각으로 지각하는 현실 세계는 가변적이고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데아의 세계는 불변하고 완전하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현실세계는 이데아 세계를 모방한 것이기에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인간들의 행위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이데아 세계에는 선과 미와 같은 여러 이데아가 존재한다. 그 중에서 최고의 이데아는 선의 이데아이며, 인간 이성의 최고 목표는 선의 이데아를 인식하는 것이다. 선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신성하며, 독립적이고, 오랜 교육을 받은 후에만 알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선을 그것이 선이기 때문에 욕구한다. 이렇게 인간의 관심 여부와는 상관없이 선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을 선에 대한 ㉠ ‘고전적 객관주의’라고 한다.

이러한 플라톤적 전통을 계승한 무어도 선과 같은 가치가 객관적으로 실재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선이란 노란색 처럼 단순하고 분석 불가능한 것이기에, 선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의를 내릴 수 없으며 그것은 오직 직관을 통해서만 인식될 수 있다. 노란색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노란색이라고 답할 수밖에 없듯이 선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선은 선이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무어는 선한 세계와 악한 세계가 있을 때 각각의 세계 안에 욕구를 지닌 존재가 있는 지 없는지와 관계없이 전자가 후자보다 더 가치 있다고 믿었다. 선은 인간의 욕구와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 존재하며 그것은 본래부터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선을 최대한으로 산출하는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이라고 보았다.

반면에 ㉡ ‘주관주의’는 선을 의식적 욕구의 산물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페리는 선이란 욕구와 관심에 의해 창조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가치는 관심에 의존하고 있으며, 어떤 것에 관심이 주어졌을 때 그것은 비로소 가치를 얻게 된다. 대상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관심이며, 인간이 관심을 가지는 대상은 무엇이든지 가치의 대상이 된다. 누가 어떤 것을 욕구하든지 간에 그것은 선으로서 가치를 지니게 된다. 페리는 어떤 대상에 대한 관심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것은 그만큼 더 가치가 있게 되며, 그 대상에 관심을 표명하는 사람의 수가 많을수록 그것의 가치는 더 커진다고 말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고전적 객관주의자는 우리가 욕구하는 것과 선을 구분해야 한다고 비판한다. 만약 쾌락을 느끼는 신경세포를 자극하여 매우 강력한 쾌락을 제공하는 쾌락 기계가 있다고 해보자. 그런데 누군가가 쾌락 기계 속으로 들어가서 평생 살기를 욕구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선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쾌락 기계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불만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누가 보든지 간에 나쁘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쟁과 관련하여 두 입장을 절충한 입장도 존재한다. ㉢ ‘온건한 객관주의’는 선을 창발적인 속성으로서, 인간의 욕구와 사물의 객관적 속성이 결합하여 생기는 것이라고 본다. 이 입장에 따르면 물의 축축함이 H<sub>2</sub>O 분자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분자들과 우리의 신경체계 간의 상호작용

을 통해 형성되듯이, 선도 인간의 욕구와 객관적인 속성 간의 관계 속에서 상호 통합적으로 형성된다. 따라서 이 입장은 욕구를 가진 존재가 없다면 선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일단 그러한 존재가 있다면, 쾌락, 우정, 건강 등이 가진 속성은 그의 욕구와 결합하여 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에서는 우리의 모든 욕구가 객관적 속성과 결합하여 선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적절한 욕구가 중시된다. 결국 여기서는 적절한 욕구가 어떤 것인지를 구분할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논쟁을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불편부당하며 모든 행위의 결과들을 알 수 있는 ㉠ '이상적 욕구자'를 상정하는 것이다. 그는 편견이나 무지로 인한 잘못된 욕구를 갖고 있지 않기에 그가 선택하는 것은 선이 될 것이고, 그가 선택하지 않는 것은 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26.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 ① 플라톤은 선의 이데아를 이성을 통해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
- ② 플라톤은 인간이 행한 선이 완전히 선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 ③ 무어는 선이 단순한 것이어서 그것을 정의할 수 없다고 본다.
- ④ 무어는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을 판별할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고 본다.
- ⑤ 페리는 더 많은 사람이 더 깊은 관심을 가질수록 가치가 증대한다고 본다.

27. ㉠에 대한 ㉡과 ㉢의 공통된 문제 제기로 적절한 것은?

- ① 사람들이 선호한다고 그것이 항상 선이라고 할 수 있는가?
- ② 선은 욕구하는 주관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형성되지 않는가?
- ③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다면 어떤 행위라도 옳다는 것인가?
- ④ 사람들이 선을 인식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과연 타당한가?
- ⑤ 선을 향유하는 존재가 없다면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28. ㉠을 상정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선을 직관할 수 없다고 보는 '고전적 객관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 ② 욕구의 주체가 없어도 선이 존재한다는 '고전적 객관주의'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 ③ 욕구하는 사람이 존재해야만 선이 형성된다는 '주관주의'의 주장을 약화하기 위해서이다.
- ④ 무엇을 욕구하더라도 모두 선이라고 간주해야하는 '주관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 ⑤ 선의 형성에서 인간과 사물의 상호통합작용이 필수적이라는 '주관주의'의 입장을 보완하기 위해서이다.

[2008학년도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M·DEET) 언어추론]

[29~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역사를 인간의 과거에 대한 기억 혹은 이야기라고 폭넓게 정의하면, 그런 의미에서의 역사는 '역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헤로도토스 이전에도 존재했다. 예를 들어 호메로스의 서사시인 트로이 전쟁이라는 과거의 사건을 다룬다. 그렇지만 오늘날 그것은 '엄밀한 의미의 역사'라는 범주로 분류되지 않는다. 시인은 문자 이전의 사회에서 축적된 집단 기억의 신화적 표상, 즉 신으로부터의 영감에 '사로잡혀' 노래하기 때문이다. 과거를 이야기하는 시인 호메로스는 단지 뮤즈 여신들과 아폴론이 준 영감, 즉 기억의 중계자일 따름이다.

엄밀한 의미의 역사가 출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바로 그 '신들린 상태', 즉 집단 기억으로부터의 해방이며, 그 결정적 계기는 이질적인 문화권과의 접촉이다. 그 결과 비로소 자기가 속한 집단이 지닌 기억 혹은 세계관을 다른 것과 비교하고 수정하는 개인이 나타난다. 이 바탕 위에서 헤로도토스의 『역사』가 서술되었다. 역사를 가리키는 그리스어 *historia*의 의미가 '목격자의 증언'에서 '탐구'로 변하게 되는 것도 이 즈음이다. 『역사』는 헤로도토스의 동시대인이 경험한 최대의 사건, 즉 페르시아 전쟁과 그 전쟁의 원인을 탐구하여 기록하였다. 그 점에서 헤로도토스는 역시 전쟁을 주제로 삼은 호메로스와 겨루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호메로스가 집단 기억의 구전으로 남았을 뿐 더 이상 탐구의 여지가 없는 아득한 과거의 일을 소재로 삼았다면, 헤로도토스는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기록과 증언을 수집하여 서술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시기의 사건을 다루었다. 9권으로 된 『역사』를 서술하면서 헤로도토스는 1~4권은 전쟁의 배경과 원인을, 5~9권은 전쟁의 과정과 결과를 서술하는 데 할당한다.

헤로도토스는 서술을 위해 기록과 증언을 가리지 않고 수집하였고, 그 중 일부는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확인하지 못했고, 그런 경우 기록과 증언을 불신하거나 비판하기보다 그대로 열거하며 소개했다. 이런 경향으로 인해 후세의 역사가들은 『역사』의 서술이 잦은 방담으로 교란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특히 1~4권의 서술에서 작가는 그리스 이외의 세계를 다루며 부단히 풍토와 풍습, 지리, 전설 등을 거론한다. 이런 특성이 나타난 이유는 구체적 정보를 분석하고 추상하는 사유가 미숙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청중을 모아 놓고 작품을 구연하던 당시의 관행 탓이기도 했다. 그는 청중이 지루해 하지 않도록 다양한 소재들을 제공해야 했던 것이다.

한편, 헤로도토스의 뒤를 잇는 역사가인 투키디데스는 후대 인물에게 '모범적인 역사가'라는 평을 받고 있다. 투키디데스 역시 자신의 세대가 겪은 사건인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주제로 글을 썼다. 그러나 여러 지역의 지리적 정보나 각 민족의 풍속 등에 대한 서술로 종종 논점이 분산되던 헤로도토스와 달리, 그는 정치사와 전쟁사에 오롯이 집중했다. 이는 작품 구성에서도 드러나는데, 그는 8권 분량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전쟁의 배경과 원인에 대한 직접 설명에 제1권을 할애할 뿐, 나머지는 전쟁 자체만을 집중적으로 서술하였다. 그는 개인적, 시대적 상황 때문에 구연물이 아닌 독서물로 글을 썼으며, 청

중의 반응을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다. 서술 방법론의 측면에서 그는 자신이 얻은 기록과 직접 목격했다는 증언만을 정보로 간주하고 간접적으로 들었다는 증언은 철저히 배제했다. 그리고 얻은 정보들을 자신의 역사 인식과 경험에 의거하여 선별하고, 상충하는 정보들 가운데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만을 독자에게 제공했다. 즉 그는 과거사(過去事)와 그에 대한 정보 사이에 괴리가 있을 경우 자신의 인식으로 이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하여 책의 서문과 첫머리에서만 잠시 1인칭으로 등장할 뿐, 그 후로는 텍스트 사이로 모습을 감춘다. 다시 말하면 화자는 텍스트 자체가 된다. 그리고 개인과 집단의 심리적 동기를 분석하고 치밀하게 묘사함으로써 사건을 생생하게 서술하였다. 그 박진감의 효과 때문에 독자는 객관적인 관찰자로 보이는 화자의 권위에 동의하게 되고, 차츰 그 동의는 습성화된다.

이후의 역사학은 헤로도토스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치밀하게 보이며 논점이 집중되어 있는 투키디데스의 서술 방법론을 본받았다. 투키디데스에 대한 후세 역사가들의 호의는 ㉠ “헤로도토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투키디데스를 그리스 최초의 역사가라 부르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라는 베르낭의 말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29. 글쓴이의 견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 ① ‘엄밀한 의미의 역사’는 자료 분석 과정에서 서술자의 주관과 경험을 배제한다.
- ② *historia*의 의미가 변화해 간 것은 현장 확인 및 증언 수집과 관련이 있다.
- ③ 역사 서술 주체로서의 개인은 다른 문화권의 존재를 인식할 때 나타난다.
- ④ 호메로스 서사시는 공유된 집단 기억의 신화적 표상에 근거하고 있다.
- ⑤ 집단 기억의 서술로서의 서사시는 넓은 의미에서 역사라고 부를 수 있다.

30. ㉠에서 ‘유혹’을 느끼는 이유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 목격자의 증언 수집	㉡. 작품 내용의 집중성
㉢. 정보의 비판적 제어	㉣. 당대사 서술의 창안
㉤. 명료한 분석적 서술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⑤ ㉡, ㉣

31. <보기>는 두 역사가의 작품 기획 의도이다. 위 글의 내용과 연관시켜 적절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은?

<보 기>

이 작품은 할리카르나소스의 헤로도토스가 탐구한 바를 보여 준다. 일어난 일이 시간이 흘러 사람들의 뇌리에서 흐려지지 않도록, 그리스인과 이민족이 보여 준 위대하고 경이로운 행적이 그 영광을 잃지 않도록, 특히 그들이 서로 싸운 이유를 알리기 위해서.

- 헤로도토스 -

아마 독자들은 전설을 이야기하지 않는 내 작품이 그다지 흥미롭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한 번 일어났던 사건이라면 앞으로도 비슷한 방식으로 다시 일어날 것이므로 실용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 작품이 유익하다고 여길 것이고,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내 역사는 한 번의 구연물이 아니라 영대(永代)의 재산이다.

- 투키디데스 -

- ①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 전쟁의 원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작품의 많은 분량을 배경과 원인 설명에 사용했다.
- ② 헤로도토스는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불분명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조사한 것을 모두 기록해 두어야겠다고 생각했다.
- ③ 투키디데스는 자신의 작품을 읽는 독자층을 정치적, 군사적 사건에 대해 교훈을 기대하는 사람들로 상정했다.
- ④ 투키디데스는 ‘전설’이나 ‘구연물’이라는 말로 헤로도토스의 작품을 암시하며 자신의 작품이 그보다 유익하다고 주장했다.
- ⑤ 헤로도토스와 투키디데스는 모두 역사가 유사하게 되풀이되므로 중요한 사건은 탐구해서 남겨 둘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리스토텔레스는 피해야 할 세 가지 도덕적 상태로 ‘악덕’, ‘짐승 같음’과 더불어 아크라시아(akrasia)라고 불리는 ‘자제력 없음’을 든다. 통상 자제력 없음은 스스로 최선이라고 이성적 판단을 내린 것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그런데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사람은 어떤 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할 수는 없다. 그에 의하면 모든 악행은 무지의 탓일 뿐이다. 그러나 ㉠ 통상의 의미에서의 자제력 없음이란 소크라테스의 견해에서 보면 성립하지도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의 주장이 실제와 배치된다고 지적한다. 알면서도 자신이 내린 최선의 판단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다는 것이다. 자제력 없는 사람도 유혹에 넘어가기 전에는 그 나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백히 생각하고 있다. 다만 그것이 나쁜 일인 줄 알면서도 어느 순간에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그 나쁜 행동을 선택할 뿐이다. 건강을 위해 식사량을 줄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음식 앞에서 무너지는 경우를 자제력 없음이라고 본다면, 그런 예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크라시아를 욕구를 자제하지 못하는 경우와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는 경우로 나눈다.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사람의 경우, 음식에 대한 욕구가 지금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이성의 통제를 적어도 그 순간에는 제압한 듯이 보인다. 분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자신이 모욕을 당했음을 이성이 알려 주고 그런 일에 대해서는 마땅히 싸워야 한다고 감정이 이끌어 가서 분을 자제하지 못하는 것이다. 욕구에 대한 자제력 없음이 분노에 대한 자제력 없음보다 더 부끄러운 이유는 이성의 역할이 훨씬 더 무시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크라시아는, ‘악덕’ 중의 하나로 아콜라시아(akolasia)라고 불리는 ‘무절제(방종)’와 어떻게 구별되는가? 아크라시아와 아콜라시아는 육체적 욕구와 쾌락의 영역에 관계된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 없다. 그러나 걱정, 명예, 승리 등 육체적인 쾌락이라 할 수 없는 것들도 아크라시아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크라시아가 관련되는 대상의 영역이 더 넓다.

대상의 영역만 다른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을 필요 이상으로 추구한다. 그것도 이성적 선택에 의해서 쾌락 자체를 추구한다. 그런 사람이 무절제한 사람이다. 무릇 이런 사람은 뉘우침이 없고, 뉘우침이 없는 자를 고칠 수는 없다. 뉘우침이 없는 것은 확고한 이성적 결정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그런 확고한 이성적 선택이라는 계기가 없는데도 과도하게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 자제력 없는 사람이다. 바로 이것이 알면서도 자신의 삶과 다르게 실천한다고 하는 경우다.

자제력 없는 사람은 올바른 이치에 따라 행동하지 못할 만큼 욕구와 분노에 지배당하지만, 그 쾌락을 무한히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될 정도까지 지배당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마음을 돌리도록 쉽게 설득되지만, 무절제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제력이 없는 사람이 무절제한 사람보다는 낫고, 또 무조건 나쁘지도 않다고 보았다. 그가 당초에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버린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32. 위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 ① 아크라시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성이 감정에 양보해야 한다.
- ② 아콜라시아의 촉발에 관련되는 대상은 아크라시아의 경우보다 다양하다.
- ③ 아크라시아의 경우에 겪는 이성과 욕구의 갈등이 아콜라시아의 경우에는 없다.
- ④ 아크라시아 상태에 빠지는 것은 그 전에 내린 이성적 판단이 애매하기 때문이다.
- ⑤ 아콜라시아 상태에서는 이성적 선택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윤리적 판단이 불가능하다.

33. 아콜라시아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 ① 국가 대표 선수 A군은 국위 선양을 위해 가까운 친지의 장례식 참석도 포기한 채 매일 연습에 매진한다.
- ② B씨는 아내의 권유에 따라 해마다 연초에 금연을 시도하지만 작심삼일로 끝나곤 한 지가 벌써 십 년이다.
- ③ 자신의 패션 감각이 남보다 낮다는 평판에 자부심이 대단한 C군은 수입의 거의 전부를 자신의 외모를 꾸미는 데 지출한다.
- ④ 속도광 D씨는 질주할 때 느끼는 스릴을 사랑하는데, 스피드에 대한 그의 멈추지 않는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
- ⑤ 수험생 E군은 컴퓨터 게임만 시작하면 날밤을 새우는데, PC방 앞을 지날 때마다 오늘은 조금만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PC방에 들어간다.

34. ㉠에 대한 진술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아크라시아는 ‘둥근 사각형’처럼 일종의 모순이라는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 ② 앓은 좋음이요, 무지는 나쁨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성립하는 견해이다.
- ③ 인간이 이성적인 한 나쁜 것을 원할 수는 없음을 전제한 진술이다.
- ④ 악행은 결국 행위자 자신에게도 나쁘다는 것을 함축한다.
- ⑤ 아콜라시아의 가능성까지 부정한 것은 아니다.

[35~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서로 같지 않은 두 부분으로 나뉜 선분 하나를 생각해 보세. 그 두 부분을 각각 ‘눈에 보이는 부류’와 ‘지성에 의해 알 수 있는 부류’라 부르기로 하고, 이 두 부분을 다시 같은 비율로 나누어 보게나. 그렇게 하면 그것들의 명확성과 불명확성의 정도에 따라 ‘눈에 보이는 부류’ 안에서 다시 나뉜 한 부분으로 영상(映像)이 자네에게 주어질 걸세. 이때 내가 말하는 영상이란 그림자, 물에 비친 상(像), 거울의 표면에 이루어진 상 같은 것일세. 그리고 ‘눈에 보이는 부류’ 안에서 나뉜 나머지 한 부분은 이 영상이 닮고 있는 실제의 것, 즉 우리 주변의 동물과 식물 그리고 인공적인 일체의 것으로 간주하게.”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애초의 두 부분이 진리에 관여하는 정도에 따라 나뉘었고, 이때 ‘닮은 것’과 ‘닮음의 대상’의 관계는 ‘의견의 대상’과 ‘인식의 대상’의 관계와 같다고 말하고 싶겠지?”

“그리고 싶고 말고요.”

“㉠ 그러면 이번에는 ‘지성에 의해 알 수 있는 부류’를 어떻게 나누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게.”

“어떻게 말씀입니까?”

“그건 이런 식으로일세. 이 부류의 한 부분에서는 혼(魂, psyche)이 앞서 ‘닮음의 대상’이었던 것을 이번에는 ‘닮은 것’으로 다루어, 가정에서 원리(arche)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론으로 나아가는 식으로 탐구하게 되네. 반면에 나머지 한 부분에서는 ‘무가정(無假定)의 원리’로 나아가는데 이는 가정에서 나아가 앞 부분의 ‘닮은 것’도 거치지 않고 이데아를 이용하여 탐구를 진행한다는 말이지.”

“무슨 말씀이신지요?”

“자네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으니 다시 말해 봅세. 나는 자네가 이룰때면 이 점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네. 즉 기하학이나 산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홀수와 짝수, 도형 같은 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 말일세. 이것들은 누구에게나 분명한 것들로서 자기 자신에게나 남에게나 어떠한 설명도 해 줄 필요가 없다고 말이지. 이러한 가정에서 출발하여 나머지 것들을 거쳐서는, 애초에 탐구를 시작한 목표에 이르러 모순되지 않게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것도 말일세.”

“물론 그거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네는 이것도 알고 있을 걸세. 즉 기하학이나 산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도형을 이용하여 논의를 하지만, 그들이 정작 생각하는 것은 이런 도형이 아니라 그것이 닮아 보이는 원래의 것에 관해서이고, 그들이 논의하고 있는 것은 정사각형 자체나 대각선 자체 때문이지 결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말일세. 그러나 이것은 ‘지성에 의해 알 수 있는 부류’에 속하긴 하지만 이때 혼은 불가피하게 가정을 이용하게 되고 원리로는 나아가지 못하는데, 이는 혼이 가정에서 벗어나 더 높이 오를 수가 없기 때문이라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성에 의해 알 수 있는 부류’의 나머지 한 부분은 이성(logos) 자체가 변증술적 논변의 힘에 의해 파악하게 되는 것으로서, 이때의 이성은 가정을 원리로서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기반(基盤, hypothesis)으로 대할 뿐이라네. 다

시 말해서 ‘무가정의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의 원리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나 출발점으로 대할 뿐이라는 말일세. 이때 이성은 그 어떤 감각적인 것도 이용하지 않고 이데아만을 이용하며 또 이데아에서 끝을 맺게 마련이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충분히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선생님께서 기하학자나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의 지적 상태를 ‘추론적 사고’라 일컫지 ‘직관’이라 일컫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자네는 내 뜻을 아주 충분히 납득했네. 그러면 넷으로 나뉜 각 부분에 대응하여 혼 안에서 다음 네 가지 상태가 일어난다고 하세나. 말하자면 최상위의 것에 대해서는 ‘직관(noesis)’을, 둘째 것에 대해서는 ‘추론적 사고(dianoia)’를, 셋째 것에 대해서는 ‘확신(pistis)’을, 그리고 가장 하위의 것에 대해서는 ‘상상(eikasia)’을 배당하게나. 그리고 이것들을, 그 대상들이 진리에 관여하는 만큼 명확성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비례에 따라 차례대로 배열하게나.”

- 플라톤, 국가 -

35. 위 글로 미루어 <보기>에서 올바른 진술을 모두 고르면?

- <보 기> —
- ㄱ. 호수에 비친 달은 ‘상상’의 대상이다.
  - ㄴ. 내가 앉아 있는 의자는 ‘확신’의 대상이다.
  - ㄷ. 열매 속의 씨앗은 ‘추론적 사고’의 대상이다.
  - ㄹ. 칠판에 그려진 직선은 ‘직관’의 대상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36. 위 글에서 추론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선분’이 나뉘는 기준은 명확성 혹은 진리에 관여하는 정도이다.
- ② 존재하는 것들을 네 가지 부류로 나누는 이면에는 가치의 서열이 개재되어 있다.
- ③ 존재하는 것들의 단계와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은 일대일 대응 관계에 있다.
- ④ 기하학이나 산술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어떤 감각적인 것도 이용하지 않고 도형이나 수 자체를 누구나 안다고 가정하고서 탐구한다.
- ⑤ ‘눈에 보이는 부류’가 ‘지성에 의해 알 수 있는 부류’에 대해 갖는 관계는, ‘의견의 대상’이 ‘인식의 대상’에 대해 갖는 관계와 같다.

37. ㉠에 대한 대답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추론적 사고’와 ‘직관’이 갈리는 지점에서 나뉜다.
- ② 이데아만을 이용하여 탐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나뉜다.
- ③ 변증술적 논변의 힘에 의해 파악되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으로 구별하여 나뉜다.
- ④ 눈에 보이는 도형을 탐구하느냐, 이 도형이 닮아 보이는 사물을 탐구하느냐를 기준으로 나뉜다.
- ⑤ 가정에서 출발하여 결론으로 나아가는 부분과 가정에서 출발하여 ‘무가정의 것’으로 나아가는 부분을 구별하여 나뉜다.





# Answer

<b>1</b>	④	<b>2</b>	④	<b>3</b>	⑤	<b>4</b>	①	<b>5</b>	⑤	<b>6</b>	②		
<b>7</b>	⑤	<b>8</b>	③	<b>9</b>	③	<b>10</b>	③	<b>11</b>	④	<b>12</b>	②		
<b>13</b>	②	<b>14</b>	③	<b>15</b>	①	<b>16</b>	⑤	<b>17</b>	③	<b>18</b>	①		
<b>19</b>	⑤	<b>20</b>	③	<b>21</b>	③	<b>22</b>	②	<b>23</b>	④	<b>24</b>	④		
<b>25</b>	③	<b>26</b>	④	<b>27</b>	⑤	<b>28</b>	④	<b>29</b>	①	<b>30</b>	②		
<b>31</b>	⑤	<b>32</b>	③	<b>33</b>	④	<b>34</b>	②	<b>35</b>	①	<b>36</b>	④	<b>37</b>	④

